〈유니버설 디자인〉

“광주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갈 길 멀다”

노만섭 씨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일본업체의 좌변기〈왼쪽〉와 자동차 시트.

비엔날레재단 노만섭씨 논문서 지적… 7개 광역청사 조사

시청사 비해 도심 전역 적용 미흡… 조례 제정도 제안

최근 모든 디자인분야를 통틀어 가장 관심받는 분야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광주 유니버설 디자인의 현주소는 어떨까. 광주시청의 사인(Sign·안내)시스템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곳의 광역청사 중 가장 편리하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전남대 예술대학에서 ‘시각디자인 박사 1호’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광주비엔날레재단 디자인팀 노만섭(45)씨는 ‘광역시 청사 사인시스템의 유니버설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시각체계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각 지자체의 청사를 매개시설(장애인 전용 주차장 안내 사인 등), 내부시설, 안내시설, 위생시설 등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설치 위치 및 높이, 접근 공간, 조명 등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줬다. 그 결과 광주시청사가 평균 24점으로 전국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대전시청사(20점), 부산시청사(19점), 인천시청사(18점), 서울·대구시청사(17점), 울산시청사(15점) 순으로 나타났다.

노씨는 “광주시청사의 사인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대전시청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광주는 도시 전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진단팀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광주의 오래된 공공기관과 인도 시스템 등이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화성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며 “민주·인권 도시 광주에서 사람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모든 디자인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만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광주·전남 지역에 유입되는 다문화가정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문화 인구를 위한 디자인과 그들이 공공청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인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년 전 일본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됐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한 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노씨는 그동안 4편의 학술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기호학에 접목한 논문을 발표해왔다.

그는 “일본에서는 15년 전 민간 주도로 유니버설 디자인포럼이 생겨났고,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공공기관과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씨는 “일본의 욕실제품 전문업체인 토토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좌변기에 팔걸이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덮개가 열리고 닫히도록 만들었다”며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 등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유니버설 디자인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도시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제품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모두를 위한 범용 디자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숫자로 본 광주비엔날레 20년

1980 비엔날레 모태

1995 창설

163만 1회 관람객 수

1183 역대 참여작가

‘응답하라 1995’.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태동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에는 어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숨겨져 있을까.

‘1980’은 광주비엔날레의 모태가 된 숫자다. 1980년 5월 ‘광주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광주비엔날레가 올해는 1980년 이후 광주와 한국,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조망하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 1980 그 후’를 선보인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는 ‘163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이 수치는 세계 비엔날레 역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1회 행사부터 지난 2012년 제9회 행사까지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를 다녀간 작가들은 모두 ‘1183’명이다. 제프 쿤스, 신디 셔먼, 게르하르트 리히터, 요셉 보이스, 애니쉬 카푸어, 빌 비올라 등 수많은 현대미술 거장들이 광주비엔날레를 다녀갔으며, 지역 작가로는 제1회 행사 때 신경호, 우제길, 홍성담 작가를 비롯해 손봉채, 강운 등 신진들까지 폭넓게 참여했다.

광주비엔날레를 거쳐 간 감독은 모두 ‘12’명이다. 총감독제는 제3회부터 도입됐다. 오광수(제3회), 성완경(제4회), 이용우(제5회), 김홍희(제6회), 오쿠이 엔위저(제7회),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제8회)씨가 단일 총감독을 역임했고, 제9회 행사 때 김선정씨 등 6명의 아시아 여성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오쿠이 엔위저와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연이어 베니스비엔날레 감독으로 ‘낙점’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성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신세계갤러리 신년특별기획전, 2월26일까지

‘삶을 짓다’

◀ 이구용作 ‘그늘진 마음1’

1부 ‘그리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

시각언어로 삶을 표현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미술 본연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월26일까지 신년 특별기획 ‘삶을 짓다’전을 연다. 전시는 1, 2부로 진행된다. ‘그리고’를 주제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회화에 담긴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2부 ‘만들고’에서는 전통적인 미술 재료가 아닌 복합매체로 다변화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1부 전시에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문종, 송필용, 이구용, 정경래, 조병철씨 등 5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박문종씨는 남도를 대변하는 ‘황토’의 서정, 즉 붉은 흙을 매개로 질박한 농촌의 서정을 화면에 담아내고, 또 거기에 걸 맞는 새로운 형식을 고민한다. 송필용씨는 가사문학권의 정취와 전통, 역사를 버무려 현대적 산수풍경을 담았다. 정경래씨는 일출, 일몰 등 자연광을 수반하는 순간적인 시간을 2차원의 공간에 옮겼다. 이구용씨는 삶과 인연의 관계 속에서 내적 변화를 겪는 자아의 모습을 솔직하고 드러내고, 조병철씨는 붓으로 표현한 거대한 자연과 산의 모습으로 편안함을 주는 미묘한 감정을 끌어낸다.

2부 ‘만들고’

다변화하는 삶의 모습

다음달 6일부터 진행되는 2부 전시에는 마문호, 안희정, 양문기, 이이남씨가 참여한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9일에는 관람객 30명에게 선착순으로 아트 상품이 담긴 복주머니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30~31일은 휴관.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

동심에 투영된 섬세한 감성·따뜻한 시선

동화작가 정혜진 ‘해오름 빛살’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광주일보 신춘문예(1991년) 출신 정혜진 동화작가가 동시집 ‘해오름 빛살’(문학신문 출판국)을 출간했다.

열세 번째 출간한 이번 동시집에는 61편의 동시와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일상의 소재와 자연을 배경으로 쓴 동시마다 작가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시선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정혜진 작가는 “아름다운 자연에 바탕을 둔 동심으로 온 세상이 밝고 환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작품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소박한 바람을 피력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시 ‘내 가슴엔’ ‘봄비’ 등이 실리기도 한 정 작가는 1977년 ‘아동문예’에 동시가 추천되기도 했다. 이후 ‘그리울 거야’ 등 여러 동시집을 발간했고 다섯 권의 동화집을 펴냈다.

특히 2012년에 발간한 장편동화 ‘별꽃 엄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엄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섬세하게 표현돼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정 작가는 ‘해오름 빛살’로 최근 문학신문사가 주관하는 세종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 작가는 한정동 아동문학상, 대한아동문학상, 전라남도문화상 등을 받았으며 전남여류문학회장, 고흥 포두초등학교장을 역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